

초등 2~고교 1학년 기초학력 진단

도교육청, 17일까지 도내 전 학교에서 진단검사 시행 검사 결과 학생·보호자에게만 제공... 등수 공개 없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 제공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37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학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제공하도록 해 과거 일제고사처럼 등수를 공개하거나 출세우는 일은 없다고 했다. 국어와 수학, 영어(초4~고1) 과목은 필수이며, 사회와 과학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보다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검사도구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꾸꾸, 배이스 캠프 등 표준화된 검사지 활용을 권장했다. 3월 진단검사 이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5~6월 1차, 9~10월 2차 향상도 진단을 권장하며, 11~12월 3차 향상도 진단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된 학생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학습부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업 내에서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소하고자 1수업 2교사제인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 34개교, 중등 17개교에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을 신청했다. 이들 학교에는 총 70명(초등 43명, 중등 27명)의 기초학력 협력교(강)사가 배치돼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돕는다. 이외에도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운영토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14개 시군교육청에는 기초학력 3단계 인준장인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 44명이 배치됐다. 또한 학력지원센터에서는 난독·경계선지능 대상 여부를 진단하는 심층진단 지원 및 지역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학생들이 학습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은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최근 한국 대표단장으로 모로코를 방문한 조화림 국제협력처장은 압델라티프 미라우이 모로코 고등교육부장관을 만나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통한 한국학의 확산과 대학 내 한국학 전공과목 도입, 그리고 공동학위제 실시 등을 협의했다.

한국학, 모로코에 확산

전북대, 마라케시 카디아이야드대에 한글학당 개소 고등교육부장관 만나 한국학연구소 등 합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모로코 마라케시 카디아이야드대학교에 새민중 한글학당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한 모로코 한글학당은 전북대에서 강사를 파견해 한국어 과정의 학과를 운영하고, 전북 국제교류센터가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모로코 카디아이야드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 숙소 및 연구실 제공, 학생모집과 어학센터 강의실 등을 제공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대는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함으로써 유학생 유치를 도모하고, 더불어 학문 교류를 통한 한국학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국 대표단장으로 모로코를 방문한 조화림 국제협력처장은 압델라티프 미라우이 모로코 고등교육부장관을 만나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통한 한국학의 확산과 대학 내 한국학 전공과목 도입 그리고 공동학위제 실시 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모로코 간 연구자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국 간 문화적 교류 외에 농생명수도인 전라북도의 R&D 능력을 상호 교류하고, 아프리카 지역학에 대한 관심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모로코 간 다양한 교류가 호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공유를 통해 모로코 내 한국학 보급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압델라티프 미라우이 모로코 고등교육부장관은 "카디아이야드대에 만들어진 한국어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한국의 IT산업 기반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 에너지 탄소 등의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자 교류가 확대돼 양국에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권위만 내세우는 이사회가 학사파행 초래”

한일장신대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명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수업 거부 이유 밝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사회 엄정 감사하라”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 명은 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2023년도 1학기 등록 및 수업 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보 3월 7일자 4면> 이는 학사파행을 유도한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의 관련된 교육부의 방편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절차라고 했다.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가 작년 12월 결격 사유가 없는 학과 교수 4명을 한꺼번에 재임용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이번 1학기 200명이 넘는 우리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특정학과를 표적으로 하는 이사회의 불법적 임면권 남용에 우리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다. 현재 운동처방재활학과는 정상적인 강의와 수업관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권위만 내세우는 이사회가 이번 학기 학사파행을 초래한 정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체육학전공 대학원생들도 동참했다. 체육학 전공 대학원생들은 “운동처방재활학과에는 5명의 전임교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의 교수만이 남아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 200여 명은 7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2023년도 1학기 등록 및 수업거부의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 실제로 운동처방재활학과 폐과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 학과는 효자 학과인데 교수 총원은 커녕, 노조소속 교수들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4명의 교수를 한꺼번에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일장신대 교수, 교직원, 총동문회, 학생 학부모

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임면권 남용외에도 자신들과 달리 비리응답과 비호에 협력하지 않는 총장에 대해 일방적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며 “총장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탈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 이사는 교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그 자녀는 최근 학교 무기계약직 직원이 됐다”며 “교육부는 학사파행을 이끈 이사회를 엄정 감사하고, 신속한 관련 이사 파견 하라”고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가속도’

도교육청, 교육환경 구축사업 희망학교 17일까지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미래교육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역량 중심의 학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2023년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사업 참여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의 수업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원하고, 더불어 교사의 원격 수업역량을 도모해 다양한 방식의 수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20개교 내외를 선정,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으로는 기존 특별교실(방송실, 컴퓨터실, 다목적실 등)을 에듀테크 수업이 가능한 특화된 환경을 구축하는 에듀테크 교실형과 일반교실을 다양한 방식의 수업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교실형’, 그리고 고품격 수업콘텐츠를 교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자재를 확충하는 ‘원격수업 지원 스튜디오형’ 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필요성, 세부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 오는 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모사업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사업실행의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이 가능한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초·중·고 70개교 내외를 선정해 기존의 노후화된 컴퓨터실을 개선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6,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무엇보다 대변화 된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수업 모델 발굴을 위한 학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지역특성 및 학교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미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입학처가 2023년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교육 연계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의 풍부한 인적역량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전주대는 총 15개 학과 28명의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해 지역 학생의

진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인재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 진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정자 입학처장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 중·고교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수진 및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 대학과 함께 지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한의학과 학부생 공동연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김현진·정수현·손재연(이상 3년) 학생의 공동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2편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 양감식(한의예과) 교수와 원광대 임정태(한의예과) 교수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연구한 ‘소염약침이 NLRP3 염증체 조절을 통해 통증 개선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은 최근 대한약침학회가 발행한 Journal of Pharmacopuncture에 실렸다. 또한 ‘약침에 대한 증례 보고 가이드라인 제안’이라는 논문도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에 채택되기도 했다. 이들 논문은 약침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약침 치료 무리한 침입증에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진·정수현·손재연 학생은 “앞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감식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게재한 2편의 논문은 약침을 이용한 치료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로 약침 치료의 효과와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이서연 박사, ‘2023 세종과학 펠로우십’ 선정



전북대학교 이서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인 ‘2023 세종과학 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30세 이하의 박사 후 7년 이내의 젊은 과학자가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연간 직접비 1억 원 이내(연구책임자 인건비 최대 6천500만원)의 학술활동비를 5년 간 지원받는다. 이서연 연구원은 전북대 대학원 바이오나노시스템공학과에서 올 2월 박사학위를 취득,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총장상을 수상했다. 또 학위과정 중 제2차로 SCI급 국제학술지에 총 4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대표 논문으로는 상위 3% 이내 저널에 게재자로 ‘Ti(HFO4)2 다공성 구조체를 합성하여 골 분해 유전자 발현 및 골 재생 향상 효과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생체적합성 재료를 이용한 의료가기 및 장비 개발에 대한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체재료 분야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했다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박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안면 미세수술용 생체흡수성 마그네슘(Mg) 고정장치의 부식속도 제어와 골 및 연조직 재생 촉진을 위한 Ti(HFO4)2/BSA 다층 표면개질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 연구를 통해 생분해성 금속인 마그네슘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티타늄 플레이트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의 부담을 해소하고, 나이가 들어 환경에서의 빠른 부식속도로 인한 조직 괴사 및 강도저하 등의 단점을 해결하며, 더불어 생체활성 표면을 통해 주변 골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고 인접한 연조직의 염증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서연 박사는 “이번 세종과학 펠로우십 선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마그네슘 고정장치를 개발하면 기존에 사용되는 티타늄과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의 골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해 임상적 기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후 해당 플레이트의 제품화를 통해 특히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